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임선아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Sun-A L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A L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Songam-ro 73, Nam-gu,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61756, Tel: +82-62-360-5967, Fax: +82-62-360-5962, E-mail: givesuna@nate.com

Received: 28 July 2016; Revised: 14 Octo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60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from June 14 to 28, 2016. After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he study, an informed consent was written by the students.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by G*power 3.1 program. The study instruments compri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est using SPSS 18.0.

Results: Communicat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awareness($r=0.427$, $p<0.001$) and other-awareness($r=0.460$, $p<0.001$). The higher level of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was proportional to communication ability. The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included private self-awareness($\beta=0.227$), public self-awareness($\beta=0.170$), social anxiety($\beta=0.182$), and external other-awareness($\beta=0.282$).

Conclusion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important to improve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curriculum will enhance the dental hygiene students competency.

Key Words: awareness, communication, dental hygiene, students

색인: 의사소통, 인식, 치위생학, 학생

서론

대학생은 대학입학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나 사회집단에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1].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 뿐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들 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담,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치료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문제해결능력, 판단력,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또한 환자의 욕구를 인식하여 의료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기에 의료기관내에서 직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할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3]. 최근 의료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준 및 건강에 대한 관

심 등 욕구가 다양해지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4]. 의사소통 (communication)은 역동적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호교환하여 자신의 메시지 전달과 동시에 수용하게 하는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5].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긍정의 강화 또한 중요하며 [6], 환자와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만족도를 높이며[7],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감소시켜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8]. 이에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다[9].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은 나와 다른사람 사이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깨닫는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인인식이 필요하다[10].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기 자신의 내적사고나 감정을 중요시 여기며,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며 자기중심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11]. 타인인식(Other-awareness)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및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타인의 내면적인 사고나 감정 등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12]. 자기인식이 부족하였을 경우 행동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보인다[13,14]. 또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타인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사소통 중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한다고 하였다[12]. 향후 임상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 논문은 많으나 [13-15],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논문은 적으며[2], 특히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의사소통능력의 논문은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원만한 대학생활과 관계형성 및 치위생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P01-201606-23-002)을 받은 후 2016년 6월 14

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광주·전남 6개 대학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시 유의수준 $\alpha=0.05$,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25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45부(94.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2.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의사소통 교과목 수강여부, 임상실습경험, 가족간 의사소통 양상, 학업성취수준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인식은 Fenigstein, Scheier, Buss[16]의 자기인식검사를 은[1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은[12]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4$ 였으나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0.76$ 이다.

타인인식은 은[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내적 타인인식 12문항, 외적 타인인식 5문항, 공상적 타인인식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은[12]의 신뢰도 Cronbach's $\alpha=0.90$ 이었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0.92$ 이다.

의사소통능력은 Navran[17]이 개발한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를 주[18]가 대학생에게 적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의 도구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5점)’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도는 주[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1$ 이었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0.86$ 이다.

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 (SPSS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기인식, 타인인식, 의사소통능력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Kruskal-Wallis test이용) 및 Scheffé test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Mann-Whitney이용: 유의수준 0.017로 검정함) 사후검정법을 시행하였다. 단, 정규성을 따르지 않은 가족간 의사소통만 비모수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은 1학년 52명(21.2%), 2학년 67명(27.3%), 3학년 73명(29.8%), 4학년 53명(21.6%)

이었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71명(69.8%)이었고, 경제상태는 중이 203명(8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중 133명(54.3%)가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었고,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자보다 없는 자가 147명(60.0%)로 더 많았다. 가족간 의사소통 양상은 인성지향소통이 192명(78.4%)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취수준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120명(49.0%)로 응답하였다<Table 1>.

2.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만점에서 3.3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불안 2.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인식은 5점만점에서 3.11점이었고, 내적타인인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Freshman	52(21.2)
	Sophomore	67(27.3)
	Junior	73(29.8)
	Senior	53(21.6)
Religion	Yes	74(30.2)
	No	171(69.8)
Economic status	High	9(3.7)
	Average	203(82.9)
	Low	33(13.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12(45.7)
	No	133(54.3)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40.0)
	No	147(60.0)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centered	4(1.6)
	Position-centered	49(20.0)
	Person-centered	192(78.4)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13(5.3)
	Satisfactory	120(49.0)
	Unsatisfactory	112(45.7)

Table 2.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N=245)

Variable	Mean±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elf-awareness	3.32±0.29	2.35	4.39
Public self-awareness	3.65±0.53	2.20	5.00
Private self-awareness	3.32±0.41	2.11	4.56
Social anxiety	2.99±0.56	1.33	4.33
Other-awareness	3.11±0.56	1.56	4.73
Internal other-awareness	3.22±0.62	1.83	5.00
Fancy other-awareness	3.07±0.69	1.25	5.00
External other-awareness	3.03±0.61	1.40	4.80
Communication ability	3.31±0.42	2.13	4.68
Verbal communication	3.45±0.43	2.05	4.45
NonVerbal communication	3.17±0.52	2.00	5.00

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은 3.31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1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 보면 자기인식은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학업성취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타인인식에서는 경제상태($F=4.524$, $p=0.01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년, 종교, 의사소통교육 경험, 실습경험, 가족 의사소통양상,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의사소통능력은 학년($F=3.259$, $p=0.022$), 가족의사소통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한 수준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Table 3>.

4.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r=0.427$, $p<0.001$) 및 타인인식($r=0.460$,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인식($r=0.406$, $p<0.001$), 공적 자기인식($r=0.403$,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0.400$, $p<0.001$), 외적 타인인식($r=0.443$, $p<0.001$), 공상적 타인인식($r=0.37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75$, $p<0.001$). 자기인식의 하위영역 중에 사적자기인식($r=0.414$, $p<0.001$), 공적자기인식($r=0.051$, $p<0.001$)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 불안은 타인인식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0.247$, $p<0.001$), 외적 타인인식($r=0.198$, $p<0.05$), 공상적 타인인식($r=0.278$, $p<0.001$)과 자기인식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인식의 하위영역과 타인인식의 하위영역 간의 관련성에서는 내적 타인인식($r=0.482$, $p<0.001$)이 공적 자기인식($r=0.437$, $p<0.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적 자기인식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5.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적 자기인식(β

Table 3.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Grade	1	52	3.30±0.27	0.992 (0.397)	3.01±0.48	1.025 (0.382)	3.19±0.40 ^a	3.259 (0.022)
	2	67	3.37±0.29		3.18±0.53		3.37±0.41 ^{ab}	
	3	73	3.30±0.28		3.08±0.56		3.27±0.39 ^{ab}	
	4	53	3.30±0.33		3.16±0.67		3.41±0.46 ^b	
Religion	Yes	74	3.34±0.33	1.963 (0.162)	3.09±0.61	1.533 (0.217)	3.29±0.40	0.303 (0.583)
	No	171	3.31±0.27		3.12±.54		3.32±0.43	
Economic status	High	9	3.42±0.48	0.581 (0.560)	3.66±0.81 ^a	4.524 (0.012)	3.48±0.29	0.836 (0.435)
	Middle	203	3.31±0.28		3.09±0.55 ^b		3.31±0.42	
	Low	33	3.32±0.28		3.06±0.48 ^{bc}		3.28±0.4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112	3.35±0.31	3.130 (0.078)	3.12±0.55	0.009 (0.924)	3.27±0.38	0.647 (0.422)
	No	133	3.29±0.27		3.10±0.57		3.35±0.44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98	3.31±0.32	3.827 (0.052)	3.13±0.61	1.326 (0.251)	3.34±0.43	0.440 (0.508)
	No	147	3.33±0.27		3.10±0.53		3.29±0.41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centered	4	3.15±0.09	0.632 (0.532)	3.12±0.51	0.081 (0.922)	2.75±0.07 ^a	4.040 (0.019)
	Position-centered	49	3.33±0.32		3.14±0.55		3.28±0.44 ^b	
	Person-centered	192	3.32±0.29		3.10±0.57		3.33±0.41 ^{bc}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13	3.43±0.35	1.527 (0.219)	3.34±0.62	1.653 (0.194)	3.40±0.50	0.340 (0.712)
	Satisfactory	120	3.33±0.32		3.06±0.60		3.31±0.41	
	Unsatisfactory	112	3.29±0.25		3.13±0.51		3.30±0.42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a,b,c}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é test(*nonparametric: Mann-Whitney)

Table 4. Correlations analysis for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communication ability, and predictable variables of participants (N=245)

	SA.	Pri.SA.	Publ.SA.	Soci.A.	OA.	Inter.OA	Exter.OA	Fancy.OA.	CA.	Verbal CA.	Non Verbal CA.
Pri.SA.	0.643***	1									
Publ.SA.	0.702***	0.469***	1								
Soci.A.	0.442***	-0.167**	-0.186***	1							
OA.	0.275***	0.414***	0.501***	-0.347***	1						
Inter.OA	0.247***	0.437***	0.482***	-0.391***	0.901***	1					
Exter.OA	0.198**	0.245***	0.395***	-0.243***	0.830***	0.606***	1				
Fancy.OA.	0.278***	0.408***	0.447***	-0.287***	0.911***	0.776***	0.611***	1			
CA.	0.427***	0.406***	0.403***	-0.007	0.460***	0.400***	0.443***	0.379***	1		
Verbal CA.	0.491***	0.367***	0.454***	0.075	0.347***	0.283***	0.363***	0.276***	0.849***	1	
Non Verbal CA.	0.280***	0.347***	0.271***	-0.072	0.451***	0.407***	0.410***	0.380***	0.902***	0.538***	1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A.=Self-awareness; Pri.SA=Private self-awareness; Public.SA.=Pub self-awareness; Soci.A.=Social anxiety; OA.=Other-awareness; Inter.OA.=Internal-awareness; External other-awareness; Fancy other-awareness; CA.=Communication ability; Verbal.CA= Verbal Communication ability; NonVerbal CA. =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by multiple regression test (N=245)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0.733	0.307		2.386	0.018
Private self-awareness	0.231	0.065	0.227	3.567	<0.001
Public self-awareness	0.135	0.052	0.170	2.581	0.010
Social anxiety	0.137	0.043	0.182	3.164	0.002
External other-awareness	0.195	0.049	0.282	3.964	<0.001

 $R^2=0.343$, $\text{Adj.}R^2=0.321$, $F=15.41$

=0.227), 공적 자기인식($\beta=0.170$), 사회적 불안($\beta=0.182$), 외적 타인인식($\beta=0.282$)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값은 0.321(32.1%)이었다.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과 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형성, 긍정적인 태도를 배운다[19].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능력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0].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대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2].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

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 불안 2.99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수준은 오[21]는 3.40점, 박과 최[13]는 3.45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은[12]의 연구에서는 3.31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가장 높았고, 박과 김[22]은 3.68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오[21]는 3.7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오[21]의 결과에서도 사적 자기인식이 3.5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불안은 2.99점이었으나 박과 최[13]의 결과에서는 3.0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중점을 두는 것이며, 사적 자기인식은 내적사고와 동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아[23], 타인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22]. 치위생(학)과 학생의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11점이었고,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 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오[21]는 3.41점, 은[12]은 3.19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위영역 중 내적 타인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인 내면에 관심을 갖고, 심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12]. 외적 타인인식에 비해 내적 타인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아 타인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능력보다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강화된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의사소통의 총점은 3.31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 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김[2]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3.2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학생의 경우 오[21]는 3.43점, 오[24]는 3.4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학생의 교육과정에서는 저학년때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 교과목인 의사소통에 관한 과목과 임상실습 과정 중 의사소통훈련이 개설 운영되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점으로 보아[25] 치위생학 분야에서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과목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인식에서는 의사소통 강의를 수강한 경우, 학업성취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타인인식에서는 경제상태($F=4.524$, $p=0.01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년, 종교, 의사소통교육 경험, 실습경험, 가족 의사소통양상,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의사소통능력은 학년($F=3.259$, $p=0.022$), 가족의 의사소통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이 우수한 수준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에 본 연구와 유사하게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13,21,26].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며, 끊임없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인식과는 양의 상관관계($r=0.42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높은 경우 자기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21,24,27]. 그러므로 자기인식은 결과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각 변수들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인 사적 자기인식($r=0.406$, $p<0.001$), 공적 자기인식($r=0.403$,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사적 자기인식, 공적자기인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오[21] 또는 박과 최[13]의 결과에서도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안이 있을 경우 타인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자세로 오히려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사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고, 생각, 태도 등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의사소통과 타인인식($r=0.460$, $p<0.001$)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r=0.400$, $p<0.001$), 외적 타인인식($r=0.443$, $p<0.001$), 공상적 타인인식($r=0.37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오[21]의 결과에서도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인 내적 타인인식, 공상적 타인인식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통해 공감성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 자기인식($\beta=0.227$), 공적 자기인식($\beta=0.170$), 사회적 불안($\beta=0.182$), 외적 타인인식($\beta=0.282$)으로 나타났다($p<0.05$). 오[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냈으며, 박과 최[13]의 연구에서도 사적 자기인식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기인식, 타인인식에 관한 추후 연구 및 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는 점으로 보아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치위생 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사소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관한 연구로 245명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기인식 정도는 3.3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적 자기인식 3.32점, 사회적 불안 2.99점이었다.
2. 타인인식은 3.11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내적 타인인식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 외적 타인인식 3.03점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은 3.31 ± 0.42 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은 3.45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3.17점이

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에서는 자기인식은 학년 ($F=3.259$, $p=0.022$), 타인인식은 경제상태($F=4.524$, $p=0.012$), 의사소통능력 차이는 가족 의사 소통 양상($F=4.040$, $p=0.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업성취수준에서 우수한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5. 의사소통능력은 자기인식($r=0.427$, $p<0.001$)과 타인인식($r=0.460$, $p<0.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은 높았다.
6.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적 자기인식($\beta=0.227$), 공적 자기인식($\beta=0.170$), 사회적 불안($\beta=0.182$), 외적 타인인식($\beta=0.282$)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처럼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훈련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2nd ed. New York: Norton & Company Incorporation; 1980: 1-196.
2.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2013; 13: 304-13.
3. Lee SK, Hwang KS, Park YD, Beom KC.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influencing smooth communication among dental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1; 35: 85-92.
4. Lee SY.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es. [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2011.
5. Jo HI, Lee MH.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Youth Res Assoc* 2010; 17: 139-58.
6. Lim SJ, Park EA. The 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ew visiting nurses in community health center.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4; 23: 115-22.
7. Wie H.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worth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nurses'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lients' satisfaction on the nursing services. *J Korean Acad Nurs Admin* 2009; 15: 382-90.
8. Rozier KG, Horowitz AM, Podschun G. Dentist-patient communication techniques used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of national study. *J Am Dent Assoc* 2011; 142: 518-30. <http://dx.doi.org/10.14219/jada.archive.2011.0222>.
9. Moon HJ, Lee SY, Lim SR.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communication skills of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4; 14: 198-206.
10. Lee KJ, Ko SH, Lee S, Kim KH, Min SY, Choi YJ, et al.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eoul: Hyunmoon Publishing; 2014: 15-7.
11. Fenigstein A.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1979; 37: 74-86.
12. Eun HG.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J Korea Youth Counseling* 2001; 9: 136-57.
13.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9; 18: 351-60.
14. Im SB.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Health Communication* 2006; 1: 59-66.
15. Song MS, An HJ, Chung YH.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0; 1: 40-8.
16. Fenigstein A, Scheier MF, Buss AH.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 Psychol* 1975; 43: 522-7. <http://dx.doi.org/10.1037/h0076760>.
17. Navran L.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 Proc* 1967; 6: 173-84.
18. Ju JS.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Master's thesis]. Daegu: Univ. of Kyungpook, 2006.
19. Lim SA, Youn HJ. Related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 935-42.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6.935>.
20. Gwon AR, Han SJ.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15; 15: 1009-17.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6.1009>.
21. Oh EJ, Ko SH, Kim JY, Kim SR.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5; 21: 426-34.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4.426>.

22. Park SW, Kim GM.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Korean J Str Res* 2011; 19: 1-10.
23. Ji EJ, Bang MG,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 19: 571-9.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24. Oh YJ.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Doctori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Korea, 2008.
25. Kim SA, Han NR, Park JH, Kim MJ, Kim HL.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small group and music activity in a communication cours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0; 19: 307-17.
26. Hyun MY. The communication training needs of nurse in the university hospital.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2; 11: 443-51.
27. Han KS, Park YJ, Kim KM, Oh YJ, Jin JH, Kang HC.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8; 17: 28-34.